

Dragor SA

September 2011

# Emerging Market Daily\*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 동향

September 1, 2011

#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 동향

이선원 (Dragor SA 대표이사)<sup>1)</sup>

우루과이는 면적이나 인구 면으로 보았을 때 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가 2010년 기준 US\$ 1만2,400달러로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도 적어 1km<sup>2</sup>당 거주 인구는 19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교통 시설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시장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

2005년도 기준 3.2 가구당 1대 꼴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지니고 있었지만 2010년도 기준으로 자동차만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5.9 가구당 1대 꼴로 아르헨티나의 4.5 가구당 1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가까워 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5년도의 자료는 아직 2002년도에 발발했던 우루과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우루과이의 자동차 시장이 과거부터 계속 발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미 국가별 자동차 1대당 평균 가구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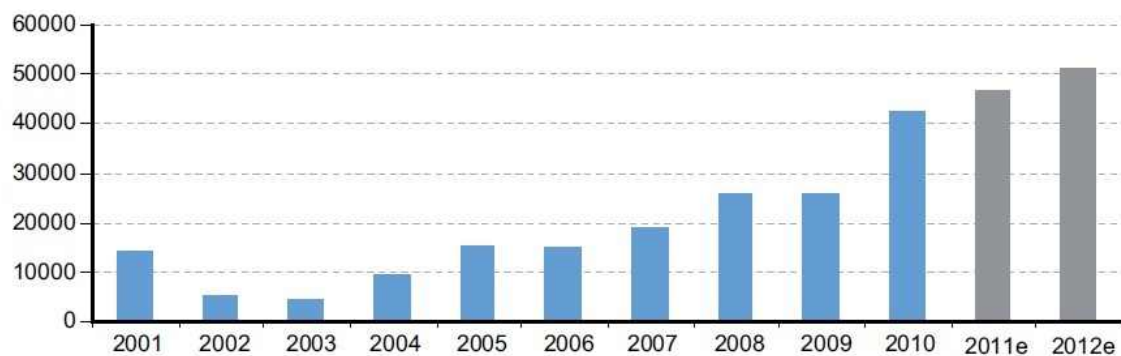
출처 : BBVA Research

1) Dragor SA 대표자 이선원은 2000년 우루과이로 이민하여 연합뉴스, YTN, 경향신문 남미통신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지회 지회장, KOTRA 세계오지지역 명예투자자문관, INKE(글로벌벤처네트워크)의 몬테비데오 지부 의장을 역임하고 있음.

## 자동차 판매량의 꾸준한 증가

지난해 우루과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총 43,710대를 판매하였다. 액수 기준으로는 9억 6,000만달러(약 1조원)를 나타내었으며, 차량 1대당 평균가격은 2만2,000달러(약 2,400만원)였다. 우루과이 자동차 협회(ACAU)에 따르면, 승용차는 총 40,664대, 트럭은 2,795대, 버스는 251대가 판매됐다.

## 우루과이 자동차 판매량



출처 : 우루과이 자동차협회(ACAU)

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는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한 해다. 이는 2009년도와 비교해서 자동차 시장이 64.3%나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평균 5년 성장률 22.5%). 2011년 상반기에도 2010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27% 성장하였다. 이같이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우선 우루과이 폐소에 대한 미국 달러가 계속 절하되면서 우루과이 폐소의 가치가 높아져 우루과이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해졌고 대출을 해주는 이자 비율도 과거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아 우루과이 국민들이 자동차를 살 돈이 부족하여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루과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루과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현황

우루과이 자동차 시장에서 쉐보레와 폭스바겐 브랜드가 28.7%, 12.8%를 차지하면서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닛산, 도요타, 현대 등 아시아 차량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지만 자동차 수리 시스템의 부재로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지역보다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래 표 참조)

## 브랜드별 우루과이 시장 차량 판매 현황

	브랜드	판매대수	%	판매대수	%
1	CHEVROLET	11657	28,7%	6071	24,1%
2	VOLKSWAGEN	5192	12,8%	3106	12,3%
3	FIAT	3755	9,2%	1501	6,0%
4	NISSAN	2135	5,3%	1103	4,4%
5	PEUGEOT	1891	4,7%	1697	6,7%
6	RENAULT	1632	4,0%	859	3,4%
7	FORD	1694	4,2%	1212	4,8%
8	TOYOTA	1560	3,8%	1005	4,0%
9	HYUNDAI	1366	3,4%	770	3,1%
10	SUZUKI	941	2,3%	846	3,4%
11	CITROEN	1009	2,5%	702	2,8%
12	GWM	858	2,1%	434	1,7%
13	DFM	698	1,7%	398	1,6%
14	EFFA	671	1,7%	719	2,9%
15	BYD	577	1,4%	179	0,7%

출처 : BBVA Research, 우루과이 자동차협회(ACAU)

한편 우루과이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만큼 무역적자도 커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는 자동차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교통수단의 교역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2009년도에는 3억 2천만달러 가량의 적자를 보였지만 2010년에는 5억 7천만달러 가량의 적자를 보였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 MERCOSUR의 장점을 이용해 여러 회사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며 앞으로 우루과이 정부가 풀고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 〈 참고 자료 〉

BBVA Research

EL OBSRVADOR

우루과이 자동차 협회(ACAU)